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현섭 편집

제520호

2025년 1월

2025년 새해의 덕담	손현섭	2
신약성서 번역본(행 4:1-18)	전준덕	3
이진구 선생의 신앙과 삶	한병덕	15
에베소서 읽기(8)	손현섭	31
사람이 무엇이기에	한정주	38
로마 에클레시아(1)	최정일	47
부활 예수의 증인들	고야마 유코	62
오류문고에 책을 보냅니다	고야마 사토시	69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70

성서신애사

2025년 새해의 덕담

손 현 섭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소 신자를 위해 바울 사도가 한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읽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부족한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되었는지 깨달으며,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은혜를 직접 느끼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은 TV도 인터넷 뉴스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온통 계엄과 탄핵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선다. 두 마리를 한 앗사리온(약 5천원)에 살 수 있었던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마 10:29)고 말씀한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높아지는 등 살림살이가 이번 일로 혼란스러워졌다고 아우성이다. 그것도 곧 정상으로 회복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대로,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자(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4:1-26)

전 준 덕

4:1절 Λαλούντων δὲ αὐτῶν πρὸς τὸν λαόν, ἐπέστησαν αὐτοῖς οἱ ἱερεῖς καὶ ὁ στρατηγὸς τοῦ ἱεροῦ καὶ οἱ Σαδδουκαῖοι.

사역 : 이제 사도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보안관과 삼두카이오스인들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주) 1. ἐπέστησαν : ἐφίστημ(ἐπί+ἵστημ의 합성동사) (가까이) 오다, 다가오다, 나타나다, 닥치다, 습격하다, 임박하다, 곁에서다)라는 ~μι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2. ἱερεῖς : ἱερεύς(제사장)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3. στρατηγός : (군사령관, 집정관, 치안관)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4. ὁ στρατηγὸς τοῦ ἱεροῦ : (성전 보안관)

2절 : διαπονούμενοι διὰ τὸ διδάσκειν αὐτοὺς τὸν λαόν, καὶ καταγγέλλειν ἐν τῷ Ἱησοῦ τὴν ἀνάστασιν τὴν ἐκ νεκρῶν.

사역 : 저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일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스님을 알리는 일로 말미암아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 1. διαπονούμενοι : διαπονέομαι(διά+πονέομαι의 합성어) (대단히) 애쓰다, 아주 괴로워하다, ~몹시 지치다, 불쾌하게 여기다, 노하다, 몹시 시끄러워하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복, 주격.

2. καταγγέλλειν : καταγγέλλω(κατά+άγγ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알리다, 선포하다, 발표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부정사.
3. ἀνάστασιν : ἀνάστασις(ἀνά+στάσις의 합성어)의 단, 대격. (1:22)

3절 : καὶ ἐπέβαλον αὐτοῖς τὰς χεῖρας καὶ ἔθεντο εἰς τήρησιν εἰς τὴν αὔριον· ἦν γὰρ ἐσπέρα ἥδη.

사역 : 그래서 저들은 사도들을 손으로 잡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1. ἐπέβαλον : ἐπιβάλλω(ἐπί+βάλλω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던지다, 었다, 입다, 손을 대다, 인수하다 (자) 부딪치다, 떨어지다, 속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2. χεῖρας : χείρ의 복, 대격. (2:23)
3. ἔθεντο : τίθημι의 제2과, 중간, 직설, 복, 3인칭. (1:7)
4. αὔριον(부) : (내일, 이튿날, 다음날, 곧, 얼마 가지 않아서)
5. ἐσπέρα : (저녁)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6. ἥδη(부) : (이제, 이미, 벌써, 지금, 마침내)
7. τήρησιν : τήρησις(감금, 구속, 감옥, 감시, 준행, 준수, 유지, 보호)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4절 : πολλοὶ δὲ τῶν ἀκουσάντων τὸν λόγον ἐπίστευσαν, καὶ ἐγενήθη ὁ ἀριθμὸς τῶν ἀνδρῶν ώσει(ώς) χιλιάδες πέντε.

사역 :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수호가 오천명쯤 되었습니다.

- 주) 1. πολλοὶ : πολύς의 남, 복, 주격. (1:3)
2. ἀκουσάντων : ἀκούω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1:4)
3. ἐπίστευσαν : πιστεύω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2:44)
4. ἐγενήθη : γίνομαι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1:16)
5. ἀριθμός : (수, 수효)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6. χιλιάδες : χιλιάς(천, 일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주격.
7. πέντε(불변) : (다섯, 오)

5절 : Ἐγένετο δὲ ἐπὶ τὴν αὔριον συναχθῆναι αὐτῶν τοὺς ἄρχοντας καὶ(τούς) πρεσβυτέρους καὶ(τούς) γραμματεῖς εἰς (ἐν) Ἱερουσαλήμ,

사역 : 이제 이튿날이 되자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히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 주) 1. ἐπὶ τὴν αὔριον : (다음날, 이튿날)의 숙어.
2. συναχθῆναι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 (모으다, 모아들이다,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 (수) 모이다, 회집하다, 초대하다, 영접하다, 대접하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함께 가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부정사.
3. πρεσβυτέρους : πρεσβύτερος의 남, 복, 대격. (2:17)
4. ἄρχοντας : ἄρχων의 복, 대격. (3:17)
5. γραμματεῖς : γραμματεύς(서기관, 서기장, 사무원, 기록자, 율법학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대)격(본절은 대격).

6절 : καὶ Ἀανναν(Ἀαννος) τὸν ἀρχιερέα (ὁ ἀρχιερεὺς) καὶ Καιάφαν (Καιάφας) καὶ Ιωάννην (Ιωάννης) καὶ Ἀλέξανδρον, (Ἀλέξανδρο

ς) καὶ ὅσοι ἦσαν ἐκ γένους ἀρχιερατικοῦ.

사역 :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카이파스와 이오안네스와 알렉산드로스와 대제사장 후손에서 다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주) 1. ἀρχιερέα : ἀρχιερεύς(ἀρχι+ἱερεύς의 합성어) (대제사장)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2. γένους : γένος(혈통, 가계, 후손, 후예, 가족, 친척, 민족, 백성, 동류)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3. ἀρχιερατικοῦ : ἀρχιερατικός(대제사장의)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소유격.

7절 : καὶ στήσαντες αὐτοὺς ἐν τῷ μέσῳ ἐπυνθάνοντο, Ἐν ποίᾳ δυνάμει ἢ ἐν ποίῳ ὀνόματι ἐποιήσατε τοῦτο ὑμεῖς;

사역 : 이제 저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새운 후 심문하기를 (시작했습니
다) 여러분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소?

주) 1. στήσαντες : ἰστημι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1:11)

2. ἐν τῷ μέσῳ : (가운데, 중앙에)의 숙어.

3. ἐπυνθάνοντο : πυνθάγομαι(묻다, 물어보다, 조사하다, 심문하다, 가려내다, 깨달아 알다)라는 dep 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복, 3인칭.

4. ποίᾳ : ποιῶς(의문, 대) (어떤 종류의? 어떤? 무슨? 어느?)의 여, 단, 여격.

5. ποίῳ : ποιῶς의 중, 단, 여격. (4:7)

6. ἐποιήσατε : ποι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1:1)

8절 : Τότε Πέτρος πλησθεὶς πνεύματος ἀγίου εἶπεν πρὸς αὐτούς, Ἀρχοντες τοῦ λαοῦ καὶ πρεσβύτεροι τοῦ Ἰσραὴλ.

사역 : 그때에 페트로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들에게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관원들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주) 1. πλησθεῖς : πληρόω(단축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1:16)

9절 : εἰ ἡμεῖς σήμερον ἀνακρινόμεθα ἐπὶ εὐεργεσίᾳ ἀνθρώπου ἀσθενοῦς, ἐν τίνι οὗτος σέσωσται, (σέσωται,)

사역 : 만일 우리가 오늘 병든 사람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가 하고 묻는다면

- 주) 1. σήμερον(부) : (오늘, 지금, 금일)
2. ἀνακρινόμεθα : ἀνακρίνω(ἀνά+κρ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묻다, 질문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분간하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직설, 복, 1인칭.
3. εὐεργεσίᾳ : εὐεργεσία(εὖ+εργασία의 합성어) (선행, 봉사, 친절, 의무)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4. ἀσθενοῦς : ἀσθενής(힘없는, 약한, 미약한, 병든, 불완전한, 주저하는, 의심하는)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여성, 중성), 단, 소유격(본절은 남성).
5. ἀνθρώπου : ἄνθρωπος(사람, 인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6. σέσωται : σώζω의 완료, 중(수), 직설, 단, 3인칭. (2:21)

10절 : γνωστὸν ἔστω πᾶσιν ὑμῖν καὶ παντὶ τῷ λαῷ Ἰσραὴλ, ὅπι ἐν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Ναζωραίου, ὃν ὑμεῖς ἔσταυρώσ ατε, ὃν ὁ Θεὸς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ἐν τούτῳ οὗτος παρέστηκεν ἐν ὄπιον ὑμῶν ὑγιής.

사역 :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기를 바라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자 하나님은 이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나조라이오스사람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소이다.

- 주) 1. ἔσταυρώσατε : (2:36)
2. παρέστηκεν : παρίστημι(παρά+ί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완료, 능동, 직설, 단, 3인칭. (1:3)
3. ὑγιής : (건강한, 건전한, 건장한, (물건등) 상하지 않은)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주격.
4. ἐν τούτῳ : (이 때문에, 이같이, 이렇게)의 속어.

11절 : οὗτος ἔστιν ὁ λίθος ὁ ἐξουθενηθεὶς ὑφ' ὑμῶν τῶν οἰκοδομούντων, (οἰκοδόμων,) ὁ γενόμενος εἰς κεφαλὴν γωνίας.

사역 :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 건축자들의 천대받은 돌이었는데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소이다.

- 주) 1. λίθος : (돌, 보석)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2. ἐξουθενηθεὶς : ἐξουθενέω(ἐκ+ούθέν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멸시하다, 천대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거절하다, 박대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3. οἰκοδομούντων : οἰκοδομέω(단축동사) (집을 짓다, 세우다, 건설하

다, 덕을 세우다, 유익을 주다, 굳게하다, 튼튼히 하다, 신앙심을 북돋우다 (수) 향상시키다, 전진하다, 굳세게 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소유격.

4. $\gamma\omega\ni\alpha\varsigma$: $\gamma\omega\ni\alpha$ (모퉁이, 모, 머릿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5. $\varepsilon\iota\varsigma$ $\kappa\epsilon\varphi\alpha\lambda\eta\varsigma$ $\gamma\omega\ni\alpha\varsigma$: (모퉁이의 머릿돌로)의 속어.

6. $\kappa\epsilon\varphi\alpha\lambda\eta\varsigma$: $\kappa\epsilon\varphi\alpha\lambda\eta$ (머리, 꼭대기, 두목, 수도, 극단, 끝, 머릿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2절 : $kai\; o\nu k\;\dot{e}\sigma tiv\; \dot{e}n\; \ddot{a}\lambda\lambda\omega\; o\nu\delta evi\; \dot{n}\; \sigma\omega t\eta\varphi\iota\alpha\cdot\; o\nu\tau\epsilon$ (oύδε) γὰρ ὄνομά ἔστιν ἔτερον ὑπὸ τὸν οὐρανὸν τὸ δεδομένον ἐν ἀνθρώποις, ἐν τῷ δεῖ σωθῆναι ἡμᾶς.

사역 :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일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오.

주) 1. $\ddot{a}\lambda\lambda\omega$: $\ddot{a}\lambda\lambda\o\varsigma$ (다른, 또 다른, 남다른, 남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여격.

2. $o\nu\delta evi$: $o\nu\delta ei\varsigma$ ($o\nu+δe\iota\varsigma=\delta\acute{e}+e\iota\varsigma$ 의 이중 합성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무가치하다, 가치 없는, 뜻 없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무효한)의 남, 단, 여격.

3. $\sigma\omega t\eta\varphi\iota\alpha$: (구원, 구출, 보존)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4. $o\nu\tau\epsilon$ ($o\nu+\tau\acute{e}$ 의 합성어) (접 : 부정을 나타냄) : (그리고 ~아니, ~도 아니, 까지도 ~아니, 또 ~아니)

5. $\dot{e}\tau\epsilon rov$: $\dot{e}\tau\epsilon ro\varsigma$ 의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1:20)

6. δεδομένον : δίδωμι의 완료, 수동, 분,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1:26)
7. σωθῆναι : σώζω의 제1과, 수동, 부정사. (2:21)
8. ἀνθρώποις : ἄνθρωπος의 복, 여격. (4:9)

13절 : Θεωροῦντες δὲ τὴν τοῦ Πέτρου παρρησίαν καὶ Ἰωάννου, καὶ καταλαβόμενοι ὅτι ἀνθρώποι ἀγράμματοί εἰσιν καὶ ἰδιῶται, ἐθαύμαζον, ἐπεγίνωσκόν τε αὐτοὺς ὅτι σὺν τῷ Ἰησοῦ ἦσαν.

사역 : 그런데 저들은 페트로스와 이오안네스가 담대하게 말한 것을 지켜보며 저들이 배우지 못하고 문외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놀랐으며 또 이에수스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 1. Θεωροῦντες : Θεωρέω(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3:16)

2. παρρησίαν : παρρησία(πᾶς+ρῆσις의 합성어) (대담한 말, 숨김없음, 솔직, 명백, 자신, 확신, 담대, 두려움 없음. (부) : 대담하게, 자신 있게, 공공연하게, 내놓고)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3. καταλαβόμενοι : καταλαμβάνω(κατά+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붙잡다, 붙들다, 얻다, 소유하다, 빼앗다, 움켜쥐다, 덮치다, 체포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동사의 제2과, 중(수), 분, 남, 복, 주격.

4. ἀγράμματοι : ἀγράμματος(ἀ+γράμματος의 합성어) (배우지 못한, 무식한, 학문이 없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주격.

5. ἰδιῶται : ἰδιῶτης(보통 사람, 문외한)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

6. ἄνθρωποι : ἄθρωπος의 복, 주격. (4:9)

14절 : τόν δὲ(τε) ἄνθρωπον βλέποντες σὺν αὐτοῖς ἐστῶτα τὸν τεθεραπευμένον, οὐδὲν εἶχον ἀντειπεῖν.

사역 : 그리고 저들과 함께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 1. βλέποντες : βλέπω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1:9)

2. ἄνθρωπον : ἄθρωπος의 단, 대격. (4:9)

3. ἐστῶτα : ἵστημι의 제2완료, 능동, 분, 남, 단, 대격. (1:11)

4. τεθεραπευμένον : θεραπεύω(섬기다, 봉사하다, 돌보다, 시중들다, 고치다, 치료하다, 치유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 남, 단, 대격.

5. οὐδέν : οὐδείς의 중성, 단, 주(대)격(본절은 대격). (4:12)

6. ἀντειπεῖν : ἀντιλέγω(ἀντί+λέγω의 합성동사) (~에 반대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부정하다, 적대하다, 대항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부정사.

15절 : κελεύσαντες δὲ αὐτοὺς ἔξω τοῦ συνεδρίου ἀπελθεῖν οὐ νέβαλον(συνέβαλλον) πρὸς ἀλλήλους.

사역 : 그런데 “저들은 공회의 밖으로 나가라고”고 명하고서 서로 간에 타협을 하였습니다.

주) 1. κελεύσαντες : κελεύω(명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강권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2. ἔξω(부) (장소) : (밖에, 밖으로, 외부로, 외국에서)

3. συνεδρίου : συνεδρίον(σύν+δροα의 합성어) (집회, 공회, 회의, 의

회, 산헤드린, 지방의회, 유대인의 최고회의)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 명사의 단, 소유격.

4. πρὸς ἀλλήλους : (서로, 상호간, 사이의)의 속어.

5. συνέβαλον : συνβάλλω(σύν+βά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함께 이야기하다, 협의하다, 타협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만나다, 직면하다, 함께 던지다, 교전하다, 싸움하다, 다투다, 논쟁하다, (중) 만나다, 돋다, 유익을 주다, 도움을 주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16절 : λέγοντες, Τί ποιήσομεν(ποιήσωμεν)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τούτοις; ὅτι μὲν γάρ γνωστὸν σημεῖον γέγονεν δι' αὐτῶν, πᾶσιν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ὴμ φανερόν, καὶ οὐ δυνάμεθα ἀρνήσασθαι·(ἀρνεῖσθαι·)

사역 :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들에 의해 표적의 소문이 분명히 히에루살렘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소이다.

주) 1. τούτοις : οὗτος(지시, 대)의 남, 복, 여격. (1:5)

2. γέγονεν : γίνομαι의 제2완료, 능동, 직설, 단, 3인칭. (1:16)

3. φανερόν : φανερός(나타난, 보이는, 알려진, 명백한, 확실한, 맑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단, 주(대)격. (본절은 주격)

4. δυνάμεθα : δύναμαι(~할 수 있다, 가능하다, 행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직설, 복, 1인칭.

5. ἀρνήσασθαι : ἀρνέομαι의 제1과, 중간, 부정사. (3:13)

17절 : ἀλλ' ἵνα μὴ ἐπὶ πλεῖον διανεμηθῇ εἰς τὸν λαόν, ἀπειλῆ

ἀπειλησώμεθα αὐτοῖς μηκέτι λαλεῖν ἐπὶ τῷ ὄνόματι τούτῳ μηδενὶ ἀνθρώπων.

사역 : 그러면(이 소문이) 백성에게 더 이상 펴져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 저들에게 협박하여 다시는 아무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합시다.

- 주) 1. πλεῖον : πλείων의 중, 단, 주(대)격(본절은 대격). (2:40)
2. διανεμηθῆ : διανέμω(διά+νέμ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분배하다, 나누다, 폭로하다, 펴뜨리다, 퍼지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가정, 단, 3인칭.
3. ἀπειλῆ : ἀπειλή(위협, 협박, 경고)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4. ἀπειλησώμεθα : ἀπειλέω(단축동사) (협박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공갈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가정, 복, 1인칭.
5. μηκέτι(부)(μή+ἕτι의 합성어) : (이제는 ~아니, 이제부터는 아니, 다시는 아니, 그 이상 아니, 더 이상 아니)
6. μηδενί : μηδείς(μή+δέ+εῖς의 이중 합성어)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 사용함) :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조금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8절 : καὶ καλέσαντες αὐτοὺς παρήγγειλαν αὐτοῖς τὸ καθόλον μὴ φθέγγεσθαι μηδὲ διδάσκειν ἐπὶ τῷ ὄνόματι τοῦ Ἰησοῦ.

사역 : 이제(다시) 저들을 불러 세워두고서 저들에게(앞으로는) 이에수스의 이름으로 일체 외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명하였습니다.

- 주) 1. καλέσαντες : κ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1:12)

2. παρήγγειλαν : παραγγέλλω(παφά+ἀγγ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3인칭. (1:4)

3. καθόλου(κατά+ὅλου의 합성어) (부) : (아주, 완전히, 전적으로, 일체, 도무지)

4. φθέγγεσθαι : φθέγγομαι(소리를 내다, 크게 말하다, 외치다, 발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현, 중(수), 부정사.

5. μηδέ(μή+δέ의 합성어) (부) : (그리고 아니, 또 ~아니, 역시 ~아니, ~까지도 아니, ~도 ~아니)

【12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8쪽17줄	ἀποκατοταις(ἀπό+κατάσ αις=κατά+στασάις	ἀποκατασις(ἀπό+κατάσι ς=κατά+στασις
9쪽15줄	ἐ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ἐξολεθρευθήσεται
9쪽20줄	ἐξολοθρευθήσεται	ἐξολεθρευθήσεται
10쪽1줄	καὶ	Καὶ
28쪽5줄	(엡1:7)	(엡1:6)

이진구 선생의 신앙과 삶

한 병 덕

성 경: 마태 21:18-22, 26:36-39

21¹⁸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¹⁹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²⁰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²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²²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6³⁶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³⁷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³⁸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³⁹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는 27일이 이 진구 선생님 11주기 기일이어서 저의 오늘 말씀은 선생님이 강의와 글로, 또 신앙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새겨 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알고 지내기는 했으나 매달 배달되는 잡지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따금 필요해서 여기로 이전하기 전의 오류집회 장소인 저쪽 4층 건물로 찾아 뵙고 노 선생님 생전에는 가끔 노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크리스마스나 새해 모임과 일년 중 두 번 전국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뵙는 것 외에는 오류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직접 배운 것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선생님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고, 이어서 오늘 성서 강의도 선생님이 쓰신 성서신애지 권두문 중의 하나를 가지고 제 생각을 덧붙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도 76년 가을경부터 노평구 선생님의 잡지를 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무교회 신앙 삶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80년 초반까지 무교회의 탁월다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모두 생존해 계셨습니다. 송두용 선생님, 박석현 선생님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저명하신 장기려 박사님, 유달영 선생님, 박정수 여사님, 최태사 선생님, 김애은 여사님 등등, 말씀을 듣기도 하고 면 자리에서 얼굴만 뵙기도 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만나 뵙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는 유영모 선생님도 나는 뵙 기회는 없었으나 당시는 생존해 계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근래 기성 교회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무교회는 특히 제가 보기에도 규모가 너무 급속히 줄어들어 있고 전국 집회의 말씀들도 예전 어른들이 계실 때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져서인지, 예전 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다시 만나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게는 그것은 이분들이 글로 남기고 가진 말씀들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노평구 선생님의 책을 종종 펴는데 우렁찬 그분의 목소리와 모습을 빼고는 알맹이인 그분이 외쳤던 기독교 신앙은 다시 듣고 아멘을 외치곤 합니다. 이진구 선

생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종이책을 거의 안 읽는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대개는 자극적인 재미 위주의 영상 문화에 정신과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럴수록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진정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신앙의 삶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여 그 길을 가도록 항상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새로운 성서 진리의 발굴과 그와 못지 않게 기왕에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 선배들의 말씀과 그들이 보여주시고 간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외국의 근 현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설교자들로 알려진 분들의 책도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우치무라, 김교신, 노평구, 송두용 선생님들의 글이 더 감명 깊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주어지면 가끔 이분들이 전해주고 가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이진구 선생님이 자신의 신앙 삶에 대해서 쓰신 글 한편을 통해서 선생님의 신앙의 삶에 대해 저의 생각을 곁들여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성경 공부도 역시 이 선생님이 성서신애지의 권두문에 쓰신 성경관련 글을 제 생각을 덧붙여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2000년 3월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 살고 있다. 단란한 가정에 태어난 것부터 은혜요. 어렸을 때에 기독교에 접하게 된 것이 은혜요, 철이 들 무렵 송 두용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은혜로, 생애를 하나님 은혜 속에 묻혀 살게 된 것이다.

갓난아기 시절에는 어머님의 유종(乳腫)으로 젖을 못 먹고 자랐다는 데, 지금은 젖이 잘 나더라도 우유로 아기를 기르지만 그 때는 우유도 없고 가난해서 미음조차 넉넉히 먹이지 못했다고 하며, 청년 시절에는 일제 말기의 전쟁시대여서 영양실조에 폐병까지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갑네들보다 건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는 건강이나 편안함 이상으로 주변 형제자매들의 사랑에 싸여 살고 있다. 사랑을 베풀지는 못하면서 받기만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 할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순수한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란 말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내 통장에는 사르밧의 과부의 가루통이나 기름병같이 필요한 대로 찾아 써도 항상 남아있다. 하기야 나는 현금이다 잡지대다 출판비다 오류문고 운영비다 등등, 구별해서 제대로 출납하는 장부도 없다. 송금해 주시는 분이나 직접 주시는 분에게도 감사한다는 인사조차 할 줄 모르며, 받을 때 뿐 누가 얼마나 낸 것도 잊어버린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도적놈의 짓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나에게 금품을 주시는 분은 내가 그런 놈인 줄 아시고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고, 부족하지만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빕

니다. 그날까지 사르밧 과부네 가루 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듯이 저의 기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80세 노년에 그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소회를 피력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선 뚜렷하게 느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도 선생님의 신앙인품이 엿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을 쓰실 때가 2000년, 선생님 연세 만 80세로 계산되었는데 그 후로도 13년을 더 사시긴 했습니다만 선생님 스스로 이제 말년에 들어섰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동안의 삶을 회고하면서 소회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와 비슷한 인생 회고담을 2년 후인 2002년에 역시 ‘성서신애’지에 ‘은혜의 3만 날’이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글인데 거기에는 해방 후부터의 자신의 직업, 직장 경력을 밝히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인용했습니다. 꽤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방 후에는 총주 활석 공장의 공장장, 6.25 후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로 새로운 공장 건설사업에 관여하셨고, 그 일이 끝나자 서울에 와서 매리야스 바늘제조 공장 건설 사업의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척관법(길이 무게 넓이를 재는 데 사용한 기존의 계량법)을 미터법으로 바꾸는 법이 시행되자(1964년) “미터법 환산기를 발명해서 실용신안특허를 받아 제작, 판매하는 사장이 되었는데 안 팔려서 왕창 망해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 무렵 송두용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은혜로, 생애를 하나님 은혜 속에 묻혀 살게 된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글은 선생님의 인생이 은혜 중에 묻혀 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송두용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해서 결국 이 은혜의 삶과 송 선생님과의 만남을 말씀하기 위해서 쓰신 글로 생각됩니다. 선생은 그

전 왜정 때에는 “허약체질에 맹장수술도 하고 영양실조에 폐병도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은혜 중에 오늘에 이를 수 있어 감사만만이다.”라면 서 그때까지의 삶의 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 개인적으로 느낀 선생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온유와 겸손

이진구 선생님에 대한 저의 인상은 우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생각입니다. 70년대 말경부터 이런저런 무교회 모임에서의 모습이나 말씀, 특히 전국 집회에서 뵙고 강의를 듣고 2-3일씩 공동생활하고 가끔 오류 문고를 방문했을 때 갖게 되는 인상입니다. 제게는 선생님은 겸손과 온유가 몸에 배어 있는 어른이라는 생각입니다. 본래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신앙인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송두용 선생님에 대한 글에서 송 선생님을 하늘에 속한 사람, 자신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정말 이진구 선생님과 저에 대해 적용할 때 적절한 비교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음, 제가 느낀 선생님의 청지기 정신이랄까 책임감입니다. 저는 여름 방학 때 성서 공부에 필요해서 어쩌다 오류동 모임 예전 건물 4층인가를 방문하곤 했는데, 그 때 보면 선생님은 한결같이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를 틀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든가 할 때는 좀 시원한데 가 계시거나 연락을 받고 나왔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인데 딱히 할 일이 없을 때에도 아마도 일단 하루 종일 그곳을 지키다가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시는 것을 알고서 성서에서 언급되는 충직한 청지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2) 경제 생활: 철저한 검소, 절약정신

다음, 선생님의 경제생활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소와 절약정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 글에서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내 통장에는 사르밧의 과부의 가루통이나 기름병같이 필요한 대로 찾아 써도 항상 남아있다.**”고 말씀했는데 얼핏 생각하면 “필요한대로 찾아써도 항상 남아있다”고 했으니 말년에라도 다소 여유있게 쓰셨나 보다 생각될 수 있지만 성서신애지 봉투는 직접 일삼아 만들어서 사용하셨고, 제가 어쩌다 그 오류문고 사무실에 들리면 낡은 에어컨이 불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기 아끼려고 삼복 더위에도 80이 넘은 노인이 선풍기 만으로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옛날 70-80년대가 아닌 90년대 중, 후반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덧붙여 선생님의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박석현 선생님 추모 모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일 자리가 마땅치 않아 매일 다방 신세를 지며 하루에도 몇 잔씩 차를 마시면서, 식성이 좋아 점심은 600원짜리 칼국수로 포식을 합니다. 양복을 10년 이상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남의 옷을 얹어서 고쳐 입는 것이니 유행과는 상관없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박 선생님의 생활에 비하면 낭비의 생활입니다.**” 왜정 때나 해방직후, 6.25직후 등 생존투쟁 수준 정도의 시절이라면 모르되, 그런 시절에도 아마 선생님의 앞에 열거된 능력으로 봐서 일반 평민 수준보다는 낫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특히 80년대 이후 들어서는 선생님이 결코 그토록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의 봉투 만들어 쓰는 것과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나로 사는 내가만들어 보아야 얼마 득보는 것이 아니니 미련한 짓이요, 그 시간을 좀 더 귀하게 써야 한다는 이론은 지금히 타당한 말이지만 세상만사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타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직도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사는 삶, 누가 뭐라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최선의 노력, 검소, 절약 정신입니다. ‘만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그 절약은 그냥 절약이 아니고 신앙적 절약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박석현 선생님의 이러한 예도 들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성서신애지 주필 격으로 글을 써 주시는 동안에도 잡지대를 꼭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용으로 누구에게 보내실 때에도 반드시 지대를 대납하셨습니다. 하기, 동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달씩 용돈을 모아 준비하셨습니다.”

즉 주시는 분의 뜻에 합당한 것에는 과감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는 최대한 검소 하자는 정신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선생님 자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옳은 길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며 선생님도 그 길을 따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요의 사회가 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별 설득력이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빈부의 문제와 관계 없이, 또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본 받아야 할 기독교 미덕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진구 선생님에게서 물질이 부요했다 궁핍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신앙에서 오는 경제생활, 곧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으로, 외적 여건과 관계 없이 자족하는 삶의 모습, 즉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빌 4:11)고 하는 그 정신을 봅니다. 이것은 빈, 부를 떠나서 그 눈이 어디를 보고 사느냐에 관심을 두는 삶의 방식이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신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후진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성서 공부로서는 이 선생님이 2003년 3월호 ‘성서신애’지 권두문에 쓰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덧

붙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의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이제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해결했다면 이후에는 제자들이 직접,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의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 하셨다. 다만 ‘믿고’라는 조건이 붙었다. 소나 양을 잡아다 바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재주가 있고 적선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믿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워보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는 갯세마네의 기도라 할 수 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생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최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이기주의자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당의 기도이지 기독자의 기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

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으니 죄인인 우리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보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2003.3)

먼저, 이 선생님의 이 말씀에서는 기독교 신자의 올바른 ‘**기도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의 배경은 마태에 의하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입니다. 그분은 본래 갈릴리 지방에 계셨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는데 4복음서를 통틀어서 확인해 보면 33년 동안 수도라 할 예루살렘은 7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여행인 예루살렘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웬일인지 청중들은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고 앞뒤로 호위 하듯 따라가면서 아람어로 ‘**호산나!**(*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유대인들이 학수고대 하던 메시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들텐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 시장판이 된 성전을 확청하고 이어서 저녁이 되자 예루살렘 성 밖의 마을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과일을 얻으려 했으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자 나무가 곧 말랐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진구 선생님이 인용하신 위 구절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무엇 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 21:22)입니다. 다만 ‘믿고’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대표적이라 생각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고 있습

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대로 마태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옆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여 이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생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최선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이기주의자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신자라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병, 사업 번성, 자녀 합격 등을 위한 기도를 ‘무당기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소망을 말씀드리되 그 성취 여부를 아버지께 일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생사의 문제까지’, 즉 삶 전체에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맡기는 일이란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크리스천이 기도에 임하는 최선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복음서가 전하는 그분의 아버지와의 일체관계(요 10:30; 14:10-11), 아버지 말씀의 대언(요 8:28), 아버지에 대한 절대 순종(요 18:11)의 삶 등을 함께 고려하면 예수께서 이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은 그분의 인성적 측면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심한 고민에 휩싸였다가(마 26:38), 심지어 누가복음 기자의, “핏빛 같은 땀을 흘렸다”(눅

22:44)든다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인성측면, 즉 인간이신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다른 많은 그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예수께서 죽음을 극구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18에,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이 것세마네 기도는 그 강조점이 앞 부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내 소망은 이것이지만 내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 희망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자기를 내려놓는 일, 즉 예수의 인간적 소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도 인간적 생각으로는 마음 한편에서는 고통을 면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도에 맞는 깊이 본 해석이라 생각하고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의 이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 역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자신을 내려놓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는다고 해도, 기도의 정신에 있어서, 사실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마 20:21)라고 요청해서 예수께 꾸중을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사실 대체로는 그런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소박, 솔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이진구 선생님 표현대로는 이기적인 ‘**무당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어떤 조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라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자신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인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때 무조건 자신의 소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반복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우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믿는 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로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그 인물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야하웨’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 즉 메시아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제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빌려 하는 기도라면 어떤 면 그것은 예수

자신의 기도라는 의미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의미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義)도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믿음으로 받는 ‘의(義)’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義)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義)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는 ‘전가(轉嫁)된 의(義)’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로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획득된 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즉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하게는 우리가 그만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심판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을 보시고 비켜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만 보면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든 불문하고 지나간 사실이 이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포함,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적인 중대한 문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덧붙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바른 자세로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즉 이 선생님의 표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라면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최선은 하나님에 이끌어 가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갈라디아서 2:20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인간 삶의 길을 누가 이끄느냐? 즉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참되냐 헛되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제외한 모든 인생관, 가치관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가 ‘천상천하유아독존(天_上天_下唯我獨尊)’, 즉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교훈은 ‘네 인생의 주체는 너 자신이다. 너 외에 의지할 것은 없고 의지할 생각을 말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도 그의 사상의 핵심은 ‘초인(超人)’ 사상입니다. ‘초인’은 그의 원작인 독일어로는 ‘위버멘쉬(Übermensch)’라고 영어로는 ‘오버맨(Overman)’ 또는 ‘수퍼맨(Superman)’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의미는 역시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 내는 자를 뜻합니다. 그의 철학의 중요한 용어의 또 하나가 ‘아모르 파티(Amor fati)’입니다. 뜻은 ‘운명을 사랑하라’, 즉 운명애(運命愛)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용기를 북돋우려는 것인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것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Jean Paul Satre, 1905~1980)도 “신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삶을 철저히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석가만 빼놓고 모두 기독교 집안의 자손들인데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증명되는 것 외에 영적 존재인 신은 그들 이성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들의 공통점은 간단히 말하면 주체성의 강조인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책임이다.’ 즉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신 창조주를 부정하면 자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귀결일 것입니다.

다. 성서는 그 길이란 필연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길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제시합니다.

근래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급속히 그 힘을 잃으면서 동시에 급속도로 증가하며 대단히 우려되는 문제가 이 첨단 문명세계에서도 국가간에는 여전히 전쟁 같은 자국 이기주의요, 사회적으로는 급속한 동성애의 급증과 함께 윤리, 도덕의식의 저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목할 것은 19세기 20세기를 휩쓴 앞의 무신론, 혹은 반신론 철학사상의 만연이 이 반 기독교적인 동성애 만연을 가져온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론' 풍조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핵심은 윤리 도덕의 상대화라는 것입니다. 즉 '윤리 도덕은 신을 믿은 기독교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인데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생에서 개인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것은 구태의연한 기독교 윤리 도덕에서 해방되어 이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이며 그것은 바로 주체성을 강조하는 저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장과 상통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동성애의 급속한 만연 등, 성의 타락 행태도 이런 풍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풍조도 유행하는 역병과 같이 어느 시점에 등장했다 가는 소멸되는 것을 긴 역사의 과정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 완성을 계시하는 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구불변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신앙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쭈어보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싶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읽기 8

(구속)

손 현 섭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1:7).

1. 들어가며

1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
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무한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다.

2. 본문 살피기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1:7).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들, 풍성한 은혜, 그의 피, 구속(죄 용서)’이라
할 수 있다. ‘아들’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말하
였으므로, 나머지 세 단어에 숨은 깊은 뜻을 공부해 보기로 한다.

1)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 중 하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은 ‘풍성함’을 이야기한다.

사랑(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엡 2:4)이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까지 나타내신다(엡 2:7)고 한다. 그 증거가 바로 나 바울이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엡 3:8) 고백한다.

바울에게 이 ‘은혜’라는 말은 언제나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펑박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던 바울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자신을 사도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였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禍, 불행)’라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눈을 여시사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다.

바울뿐만이 아니다. 우리도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했던 적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값 덕분이다. 그 누구의 요청이 있었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일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이루어졌다.

바울이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였듯이 야고보도 하나님의 풍성

한 은혜를 강조하였다. 야고보서 1장 5절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그리고 다함이 없다. 수 세기에 걸쳐 이 땅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은혜의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가? 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요 4:14).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홀로 세상을 이기라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내가 구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고 있다.

이는 저(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1:18)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많은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1장에서만 보아도 표현을 달리하며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연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8절)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18절)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19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23절)

우리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자(엡 3:17-19).

2) 그 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데 ‘그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한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말하면 쉽게 받아들인다.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십자가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도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나름대로 논리를 붙이고자 애를 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죽음은 증명이 필요없다.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더욱더 확실합니다.(롬 5:10)

예수님도 자신을 증언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요 8:28).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요 8:34,36).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인자가 높이 달리는 일’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밝히셨던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은 진리 중의 진리이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은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떠나 갔다(엡 1:12). 오직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데려가기 위한 절차였다.

3) 구속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우며 죄를 짓기가 십상이다. 이사야는 우리의 상태를 아주 잘 지적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사 59:1-2).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다(요 5:45).

모세가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하였다. 모세가 쓴 글, 율법은 사람의 죄를 밝히는 잣대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구속(救贖) 곧 죄 용서가 있었다. 구속(救贖)은 구(救)하고 속(贖)한다는 말이다. 구는 건질 구(救), 속(贖)은 재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다

는 한자말이다. 그러니 죄를 면제받기 위해 무언가를 바치고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게 구속(救贖)이다.

죄를 면제받기 위해 바친 그 무엇, 예수님의 피(죽음, 십자가)라는 것이 성서가 줄곧 말하는 속죄이며 구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애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를 구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고 우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믿기로 작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고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속전(贖錢)을 주고 죄에서 건져낸 분이 예수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며 구주이시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다시 또 확인하여 말한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엡 2:13).

하나님과도 멀었을 뿐 아니라 전도자 바울과도 멀리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까워졌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 사이도 가까워질 수 없었다.

그렇다. 같은 신앙의 동지를 육친의 형제들만큼 애틋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도 나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 맷으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통해 이 풍요로운 사랑 속에 살도록 해주셨다. 나는 젊었을 때보다 모든 게 퇴보하는 노인이 된 후, 그 풍성함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으니 이도 참 감사하다. 나야말로 참 행복자인가 한다. 쓰카모토 토라지(塚本 虎二) 선생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읽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만물 모든 게 들어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십자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우주 만유를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만물이 담겨있어?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세상 사람은 조롱하리라. 아무렴, 바보 같다. 나도 몇 년이나 이렇게 조롱했다. 그러나 지금은 $2+2=4$ 보다 명백한 진리이며, 내가 심장을 갖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다.

둘째는 이런 무한의 부를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다만 믿는 것만으로, 즉 “주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 좋다는 데 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한 잔의 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도덕적 완성은 전생애를 희생해도 얻을 수 없다. 그 어떤 성인君子도 도덕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하물며 나 같은 보통사람이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노력, 대가도 없이 이것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무력하다. 지갑도 비어있고, 정신도 도덕적 프롤레타리아다. 아니 죄인의 괴수이며 도덕적 파산자다. 이런 내게 아무말 없이 도덕적 완전을 주는 그리스도교 이외에 가야 할 길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

한정주

나의 일과 중의 하나가 친구와 함께 동네 산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 산책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 참 행복하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속 깊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아름답다, 감사하다’란 감정이 있을 것이다.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 아침에도 오색 단풍을 차려입은 나무와 산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시편 8편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제8편(개역한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2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자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밭 아래 두셨으니
- 7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깃딧(gittith)

시편 8, 81, 84편 표제어에 소개된 리듬 내지는 악기 이름으로 추정된다. 거문고, 수금 등의 악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흑자는 히브리어 ‘깃딧’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란 뜻으로 해석하여 포도주 수확 때나 추수 후 축제 때 부른 노래로 추정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 성경사전)

1. 톰슨성경

이 찬양시에서 다윗은 모든 자연을 지으시고 그 자연을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특히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악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깊은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

8:4 사람 … 인자는 인간의 속성을 표시한 것으로 사람(히브리어, ‘에노쉬’)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자[히브리어, ‘아담’(원래 ‘벤 아담’임, 글쓴이 주)]는 흙으로부터 피조된 인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8:5 전사는 원래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나 때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2. 그랜드 종합주석

대자연의 장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 앞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을 모든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께 찬양으로 승화시킨 다윗의 감사 예배시이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썼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과거 목동 생활을 했던 경험 때문에 남달리 자연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그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던 중 영감을 얻어 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것으로 여겨진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主)로 거듭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 특별히 인간을 존귀히 여기사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찬양시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를 공중 예배시나 특별한 절기 때에,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 승천 기념일’(the Ascension Day)에 특별히 낭송하였다.

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본래 ‘주인’, ‘소유자’란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 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며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재자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이다.

8:2 주의 대적을 인하여 …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전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악인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자 거짓이나 교만을 행할 줄 모르는 순전한 자들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통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인정치 않던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절은 예수에 의해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시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이 어린이들의 호산나 찬양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을 질책하시는 말로 인용되었다 (마21:16)

8:4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시인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비할 때 지극히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탄성을 발한다.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 나이까.** ‘권고하사’에 해당하는 ‘파카드’는 ‘돌보다’, ‘권념하다’는 뜻으로 앞의 ‘생각하다’와 유사한 의미의 말이다.

8: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적 존재로 보았다. 즉 사람은 그 존귀함이 비록 천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창 1:26)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Keil).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비록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세우신 것을 의미한다(창2:28) (그랜드종합주석9, 83-85쪽)

3. 유희세, 8편(1)

성가대의 지휘자에게, 깃털의 가락에 맞추어, 다윗의 노래

1 야하웨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서 어찌 그리도 존엄하신지요!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2 당신은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의 토대를 놓으사 당신의 원수들에 대비하십니다.

적과 적대자를 진압하기 위하심입니다.

- 3 당신 손가락의 작품이신 당신의 하늘을 제가 보고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볼 때
- 4 [약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 5 당신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영예를 관 씌워 주신 것입니다.
- 6 그에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 7 모든 양과 [모든] 소도
그리고 들짐승들까지도
- 8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바다의 물길을 다니는 [모든] 것들[까지]도
- 9 야하웨여, 우리 주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서 어찌 그리도 존엄하신지요!

이 시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하나님의 존엄과 권능(1,2절),
- (나) 인간의 약함(3,4절),
- (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5-8절),
- (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9절)

2절. 갓난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2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나는 갓난아기와 젖먹이 또 하나는 원수들, 적이요 적대자다.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이다. 갓난 아기와 젖먹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권능의 토대를 놓으사. 이 말은 원문이 ‘토치카를 축조하시’라고도 번역된다. 하나님은 권능의 토대를 교만한 원수들의 물리적인 힘에 놓지 않으시고 젖먹이의 입에

놓으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기에, 거기에만 승리의 토치카를 축조해 주시는 것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28-36쪽)

◎ 토치카

어원: 러시아어 точка, 콘크리트나 모래주머니로 단단히 쌓은 전투용 진지. (네이버, 위키 낱말사전)

8편(2)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는 1969년 7월, 인류 최초의 달나라 여행 때 인공위성(Apollo11)이 달 표면에 두고 온 지구에서의 통신문 중에 포함되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의 선언과 인류의 숭고한 심경과 사명의 주장’이어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4절.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나를 찾아와 돌보아 주시기에 나 같은 것이 인간의 분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감탄하게 되는 것(1절, 9절)이다.

5절.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데까지 영광과 존귀로 관이 씌워지지 만 그것은 하나님이 위탁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은 인간 중심의 인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적 인간관이다. 인간의 비천함에 비하여 하나님이 위탁하시는 책임과 영예의 존귀함, 이 양면의 깊은 연결이 이 시의 특색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37-39쪽)

4. 석진우, 8편 창조

이 시인을 황홀하게 잡는 것은 저 하늘의 찬란한 별 뿐 아니라 더욱 더 시인의 가슴에 스며드는 그 빛나는 하늘의 현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榮光)이다. 이 하늘을 친란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偉大)이다.

마치 하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고 찬미한다. 이것이 1절과 9절의 ‘우리 주 야하웨여’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두 절이 이 시의 틀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부분은 예배(축제)의식에 있어서 모든 회중(會衆)이 코-러스(합창, 글쓴이 주)로 부른 듯하다.

그 중간은 시인이 혼자서 야하웨를, 그 영광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기초적인 국면은 하나님 경외와 그 영광중의 즐거움이다.

(시편 노우트, 석진우 엮어 지음, 도서출판 성실문화, 51-54쪽)

5. 칼빈, 인간은 신적(神的) 지혜의 최상의 증거이다.

옛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아리스토텔레스, 글쓴이 주)이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小宇宙)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도 아라투스(Aratus)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하나님, 글쓴이 주)의 소생이라’ (행17:28)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훌륭한 탁월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기독교강요 상(上), 존 칼빈 지음, 생명의 말씀사, 105-106쪽)

5. 맷으며

이 시는 종종 음악의 주제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세상과”(For the Beauty of the Earth) 및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같은 찬송가에 영감을 주었다. (네이버, 위키백과 한국어)

시편 8편은 최덕신 작사, 작곡 ‘여호와 우리 주여’를 복음송 가수 박종호

(1988년 박종호 1집 앨범에 수록)가 불러 유명해진 찬양곡으로, 내가 젊은 시절 교회에 다닐 때 청년부에서 많이 불렸었다.

오랜만에 이 찬양을 따라 부르다보니 오래전 가족과 함께 강원도 인제 여행 중에 바라본 밤하늘이 문득 떠오른다. 마을 전체가 새까맣고 고요한 가운데에 유난히도 반짝이고 쏟아져 내릴 듯 무수한 별들. 서울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밤하늘의 풍경에 압도되고 말았었다. 저 커다란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밤이었다.

이 시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은 2절과 4절이다. 많은 번역 중에서도 HOLY BIBLE(NIV=New International Version)성경이 좋았다.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이기는 것은 힘없고 약하고 꾸밈없이 순수한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에 힘입어(찬양함으로, have ordained praise) 이긴다는 것이다. 독특한 하나님만의 전술(戰術)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 시에서 우리는 약과 대적할 때 우리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바로 약과 맞서서 버티며 힘쓰려 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이다. 신앙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찬송가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이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다윗과 골리앗(삼상17장), 기드온의 삼백명의 군사들(삿6-8장),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에 맞서서 이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왕하19장) 등이 그 예이다.

다음은 4절의 ‘생각하다, 권고하다’이다. ‘생각하다’는 단순히 ‘think’의 차원을 넘어서서 ‘mindful’ 즉 ‘유념하다’ 즉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다’의 의미이다.

‘권고하다’는 돌보아 생각하는 ‘권념(眷念)하다’의 의미로 care for’ 즉 ‘돌보다’로 방문해서 돌봄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말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이때도 우리는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직접 방문해서 찾아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심방(尋訪)을 기다리면 된다.

매일 매일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친히 찾아와 돌보아 주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시편 8편

최덕신

The musical score for Psalm 8 is presented in a single-line staff format.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and the corresponding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The score is divided into sections by measure numbers (1, 6, 11, 15, 19, 23) and includes a 'Fine' (ending) section. The chords include C, G/B, Am, Em, F, F#dim, C/G, A7, Dm, Dm7, G7, 2.3Dm, G7, C, Fine, and D7/F#.

여-호-와-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 어-찌-그-리-아-름-다
6 운-지-요- 어-찌-그-리-아-름-다 운-지-요- 어-찌-그-리-아-름-다 운-지-요-
11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 신- 주- 의-하-늘- 과-
15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 가-보-오- 니-
19 사- 람- 이- 무- 엇- 이- 관-대- 주- 깨- 서- 저-를- 생- 각- 하- 시-며-
23 인- 자- 가- 무- 엇- 이- 관-대- 저- 를- 권- 고- 하- 시- 나- 이-까-

로마 에클레시아

최정일

1. 서론

○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살펴봄에 있어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 1) 로마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 2) 로마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의 대다수는 유다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 민족 출신이었는지?
- 3) 로마 에클레시아의 신앙적 성향은 특수했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적 성향을 가졌었는지?

2. 로마 에클레시아의 설립

○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세운 에클레시아들이 열거되는데, 거기에 로마 에클레시아는 없다. 그러나 로마서 자체가 비록 완전히 조직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로마제국의 수도에 여러 개의 그리스도 신자 집단들이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사도행전 28장[28:14-15]의 앞부분이 로마 에클레시아의 존재를 가정한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아피우스]광장과 트레스 마을 [=트레스 타베르나]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신자들은 먼 길을 떠나 로마에서 66킬로미터나 떨어진 아피온 광장까지 바울을 마중나왔다. 또 어떤 그리스도 신자들은 49킬로미터 떨어진 트레스 타베르나까지 마중나왔다. 바울은 오랫동안 애타게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

○ 기원 62년 봄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도착한다. 루터 성경에서는 기원 60-61년 또는 기원55-56년으로 본다. [행 27:1-28:16]

○ 로마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 가지 견해가 나뉜다.

1)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의 복음전파로 세워졌다고 본다[=제1설]. 즉 베드로 사도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재위 기원41-54년]의 치세가 시작할 무렵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시몬 마술사와 싸웠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는 완전히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틀렸다고 고대는 본다. 이 견해의 주창자는 순교자 저스틴[=유스티누스:Justin]과 유세비우스[=Eusebius]이다. 만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일찍[즉 기원 41년경]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 했더라면, 바울 사도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설립자에 대한 언급 없이 로마 에클레시아에게 <긴 편지=로마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로마서가 매우 긴 편지인 동시에 얼마간 복음을 완전히 해설하는 편지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의 원칙[=다른 사도가 세운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편지를 쓰지 않는 것]에 어긋나게 다른 사도가 세운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편지를 쓸 수는 없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롬 15:20-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후 10:16-우리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 중 티어쉬[Thiersch]만 유일하게 이 베드로 사도 전도설을 지지한다. 그는 그 근거로서 1) 행 12:17의 베드로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의 ‘다른 곳’을 <로마>로 보며, 2)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다인의 로마에서의 추방령[기원49년][행 18:2-고린도에서 바울은 본도[=폰토스] 태

생인 아굴라[=아퀼라]라는 유다인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클라우디우스]황제가 모든 유다인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프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에 관한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문장의 한 구절을 근거로 드는데, 거기에는 크레스투스[=Chrestus]의 선동으로 계속 소동이 일어났다고 있다. 티어쉬는 이 문구가 베드로 사도가 이 무렵 로마에 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로마의 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서 소동이 일어난 증거라고 본다.

○ 그러나 티어쉬가 드는 이 근거 또한 신빙성이 약하다고 고데[=Godet]는 본다. 즉 만일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로마로 물러났다면 누가가 특별히 로마라고 지칭하지 않고 다른 곳이라고만 말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기원 51년에 베드로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할 수 있고 행 15장-예루살렘 사도회의 때의 베드로 사도의 연설], 기원 54년에는 시리아의 앤디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발견할 수 있다[갈 2:11-14-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다].

○ 로마제국의 서쪽지역[유럽] 전도의 위대한 개척자인 바울 사도 자신은 기원 42년에는 유럽 대륙에 발을 올려 놓지도 않았고, 그리스에서 전도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6-13장에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길을 닦은 모든 섭리적 상황들을 매우 주의 깊게 열거한다[=베드로 기사: 행 9:32-35(룻다와 사론); 행 9:36-43(욥바); 행 10:1-48(가이사라)]. 따라서 확실히 베드로 사도는 기원 42년까지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수에토니우스>의 글구에서의 ‘크레스투스’를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신자의 전형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다.

○ 오히려 로마의 전승은 암브로시아스터[Ambrosiaster]로 알려진 작가 [기원3세기 또는 4세기에 살았음][그는 또한 로마 에클레시아의 집사였음]

의 증언 안에서 찾아야 하며, 그의 진정한 이름은 ‘힐라리’[=Hilary]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로마인들은 단 하나의 표적도 보지 않았어도 그리고 단 한 명의 사도를 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진지하고 독립적인 19세기의 가톨릭 학자들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통치 시기의 베드로의 로마 전도설을 거부한다.

○ 물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로마에 온 것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대[로마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코르의 디오니시우스, 무라토니의 단편의 저자, 이레내우스, 테르툴리안, 카이우스 등]. 아무튼 베드로 사도의 로마 방문은 로마서가 집필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옥중서한들[=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집필[=기원62년과 63년]전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일 베드로 사도가 그 때 바울 사도와 동시에 로마에서 전도했더라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언급하는 복음의 전파자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빠뜨릴 수 있었겠는가? 또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 이름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빠뜨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기원 63년 말 또는 기원 64년 초까지는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의 체류 기간도 그가 네로 황제의 박해의 제물로 순교한 기원 64년 8월까지에서 돌이켜 볼 때 불과 수개월뿐이다.

2) 제2설

-이는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 거주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신자들과 접촉했을 것이고 그 후에 이 로마 거주의 유다인들이 로마에 믿음의 씨앗을 날리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행 2:5-10]에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다인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놀라 말했다. “우리는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다른 언어]으로 말하는 것

을 듣고 있소. 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 행 2:10에 나오는 로마 거주의 순례자들은 그 일부는 유다인들이었고 또 일부는 유대교 개종자들[=이방 민족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성령강림절 사건 때 현장에 있었으며 그 이후로 모든 축제때 그리스도 신자들과 반복해서 접촉했다. 이 설에 따르면 복음이 로마 안에서 전파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즉 로마에 거주하던 시나고그[=유대교 회당]의 구성원들이다.

○ 만골트[Mangold]는 이 설의 열렬한 주창자인데, 그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1) 첫 번째 근거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일찍이 방문했다는 ‘전설’인데, 그 전설은 실질적으로는 베드로가 수장인 사도들의 에클레시아=예루살렘 에클레시아와 로마 시나고그간의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추정이고, 2) 두 번째는, 수에토니우스의 문구인데, 즉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발령되게끔 한 소요와 격렬한 논쟁이 로마의 시나고그의 구성원들과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 순례자들 간에 일어났고, 그 계기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로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고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논거로서는 1) 첫 번째 논거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일찍이 방문해 로마 에클레시아를 세웠다는 ‘전설’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인 점과, 2) 두 번째 논거는 바우어[Baur]가 말하듯, 너무나 불확실한 추정일 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젤러[Wieseler]에 따르면, ‘크레스투스’는 불명확한 유다인 선동자를 가리키거나 또는 수에토니우스가 유다인 사이의 메시아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름을 실제로 살아있는 이름으로 생

각하고 그에게 끊임없는 소란과 반란의 경향의 책임을 지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하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가 내란적 소동이 일어났다고 쓸 때는 반란의 발발을 가리키지, 단순히 시나고그 내에서의 내부적 논쟁들이 벌어진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런, 단순한, 시나고그 내의 내부적 논쟁들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O 나아가서 이 제2설에 반대되는 논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로마 에클레시아를 소동에 빠지게 한, 위의 가설에서의 상황과 유사한 그 어떤 상황도, 로마제국의 다른 대도시들 중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로마 외의 곳에도 유다인의 거주지는 있었다. 에베소, 고린도와 대살로니카에도 유다인의 해외 집단거주지[디아스포라]는 있었다. 바울 사도가 이 도시들[에베소, 고린도, 대살로니카]에 도착해서 그들의 시나고그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했을 때,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팔레스타인의 에클레시아가 로마제국의 다른 도시들 안에 있는 시나고그들에 대해서보다도 로마의 시나고그에 대해서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 그 어떠한 이유라도 있다는 것인가?

2) 이 두 번째 사실이 더 결정적인 것 같다. 즉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에 도착한지 3일만에 그가 죄수로 연금된 셋집에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을 함께 불렀다고 되어 있다. [행 28:16-28]에는 이렇게 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거레나 조상 전래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

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모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에 그들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이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한 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사 6:9-10(칠십인역)].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자신들에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왜냐면 우리는 당신이 속한 이 분파가 모든 시나고그에서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들어 알기 때문이오.라고 했다.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이

렇다.

이 새 신앙의 내용을 모르므로 우리는 당신과 같이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꼬박 바울 사도와 대화할 날로 정한 것이다. 그 날 대화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논의되었다[행 28:23].

○ 만일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미 정말로 로마 시나고그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격렬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라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제정하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로마 시나고그의 구성원들의 이 무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예컨대 뢰쓰[Reuss]는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의 질문은 그리스도교 신앙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바울 사도의 개인적 가르침에 대한 것 이었고 그래서 그 때 바울 사도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은, 유다인 그리스도신자 당파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뢰쓰의 견해대로라면, 행 28:22의 그리스 원문이 ‘하 프로네이스’[ά φρονεῖς: what things you think]가 아니라, ‘하 쉬 프로네이스’[ά σύ φρονεῖς: what things you you think]이었어야 그리스어에서 인정대명사의 주격은 강조 할 경우에만 쓰인다] 했다! 또한, 행 28:23은 분명히 바울의 설명이 단지 바울 사도 자신의 독특한 가르침과 유다주의적 그리스도신자들[=율법주의적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들: 이들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율법의 준수를 강요했음: 또한 이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들’, 즉 ‘그리스도 신자로서 유대교 율법 의식과 할례를 지키지만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회의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이를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들’과 대립됨의 가르침 간의 ‘차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일반에 대한 것임

을 보여주고도 있다.

○ 다른 사람들은 [행 28:22]의 로마의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의 말을 ‘책략’이거나 또는 ‘신중한 유보’라고 본다. 즉 그들은 로마의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의 말을 타협과 절충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말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만골트가 생각하듯이, 재판때 바울 사도에 맞서서 사용할 자료로서 바울 사도 자신의 말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끌어내기 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의 나머지 기사들을 보면, ‘이 추정’은 설득력이 없다. 즉 사도행전 28장의 나머지 기사들을 보면, 로마 시나고그의 구성원들은 신앙문제의 토의를 매우 진지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된 회의의 날에 로마 시나고그의 구성원들은 그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의 수효보다 훨씬 더 많은 수효가 참석한다. 회의의 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성서 본문들을 참고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생애에 대하여 토의한다. 이것은 그들의 ‘진지한 관심’을 의미한다. 회의 결과 로마 시나고그의 구성원들은 둘로 나뉜다. 즉 바울 사도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측과 바울 사도의 설명에 저항하는 측으로!

만일 그들이 바울 사도와 토론하기 전에 이미 ‘복음의 가르침’에 익숙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만 바울 사도에 대한 뒷을 놓으려고 이 회의에 참석 했더라면 이런 회의 결과는 있을 수 없다.

○ 올스하우젠[Olshausen]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한 로마에서의 유다인들의 추방으로 인하여 유대교 시나고그와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Jewish Christians)간에 완전한 결렬이 일어났다.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은 당연히 추방령을 피하려고 했다. 추방되었던 유다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추방되었던 유다인들과 그리스도 교회(the church)간에는 아무런 공유점도 없었다. 로마의 유다인들(the Roman Jews)은, 곧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회상을 잊어버렸다.

○ 그러나 바우어와 만골트는 올스하우젠의 이 추측을 철저히 거부한다. 즉 바우어와 만골트는 올스하우젠의 이 추측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대하여 실제 있었던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할당한다. 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만일 복음이 시나고그 안에 이미 충분히 선포되었었더라면, 어떻게 그 짧은 추방 기간으로 인하여 유다인 공동체[Jewish community]의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기억이 그토록 철저히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바우어는 모든 미봉책을 버린다. 바우어는 어려움을 근절했다. 즉 바우어는 사도행전 28장의 기사를 가공의 이야기라고 선언한다. 바우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 사도가 원래 진정하게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다주의에 융화적인 사람으로 통하게 되기를 바랐다.라고 본다.

○ 바우어는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로마의 유다인(the Jews of Rome) 측의 적극적 불신의 행위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자신은 로마제국의 수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믿게 만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본다. 바우어는 바울 사도는 유다인 그리스도 신자들(the Jewish Christians)이 유다인에게는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바우어는 사도행전 28장의 기사는 가공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힐겐펠트[Hilgenfeld]도 사도행전 28장의 기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본다.

○ 그러나 바우어와 힐겐펠트의 이 주장들[=즉 <사도행전>28장의 기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어렵지 않다! 확실히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이야말로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즉 바울 자신이 자기 손으로 이것을 세 번 로마서[즉 롬 1:16; 2:9-10]에서 ‘먼저 유다인에게’라고 말한다. 롬 1:16-이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

이기 때문입니다. 롬 2:9-10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다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다인을 비롯하여 그리스인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 이것은 또한 로마의 유다인[=the Jews of Rome]에게 행한 바울 사도 자신의 전도 순서이고,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매우 조심스럽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the rulers of the synagogue of Rome)은 분명히 도처의 유대교 시나고그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 즉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라는 선포에 대한 논쟁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이 새 믿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결국 그 때까지 그리스도교는 아직도 로마 시나고그에서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다.

○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유다인들에 의하여 <로마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설립을 다른 기원에 할당해야 한다! 세계에 대한 로마의 관계는 신체에 대한 심장의 관계와 같다. 즉 로마는 생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순환의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국의 모든 부분들에서 로마로 다 흘러 들어간다. 로마서가 집필되기 훨씬 전에 복음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변경을 넘어서 이방 세계[=시리아, 소(小)아시아, 그리스]로 전파되었다. 이 새 종교적 원칙은 이들 이방 세계로부터 로마에로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었는가? 사실 시리아와 로마간의 관계는 특히 빈번 했고 허다했다. 르낭[Renan]은 로마는 모든 동양의 종교들의 모이는 지점이었다라고 지적한다. 시리아인도 그리스인도 다른 아시아인들도 모두 로마로 들어왔다. 기원 50년에는 이미 그리스도 신자가 된 시리아에 거주했던 유다인들이 로마로 들어갔음에 틀림없다[르낭, Saint Paul]. 달리 말하면 기원 50년에는 이미 수도 로마에 예수라는 낱말이 들어갔음에 틀림없

다. 시리아의 앤디옥과 시리아의 각 에클레시아는 그 대다수가 그리스인들이었다. 이 이방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자들도 매우 일찍 로마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로마와 더욱 더 가까이 위치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의 구성원들은 훨씬 더 일찍 수도 로마로 들어갔을 것이다.

○ 로마 에클레시아의 구성원들 중 대다수는 이방민족 출신의 그리스도 신자들이라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다. 로마서의 말미에 다섯 번 나오는 인사들에서 바울 사도는 수도 로마 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자들의 그룹들에 대하여 말을 건네고 있대 물론 이 인사들이 참으로 로마서에 속하는 기사들인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반면에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다섯 번의 또 다른 인사말은 그리스인 신자와 로마인 신자들을 향한 것이다. 이 인사말들은 복음이 수도 로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증언해 준다. 이방인 출신의 이 이름과 그들이 광범하게 흩어져 사는 것은 수도 로마의 각 지역 안에 살면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각각 말씀을 전한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과 아시아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이 수도 로마에 도착해서 거주했다. 라는 자연스런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 만일 시나고그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었더라면, 로마에서의 복음선포의 과정과 순서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의 첫째 부분과 관련된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까이 올 때 로마에 거주하던 형제들이 서둘러 그를 만나러 와서 애정으로 바울 사도를 영접하여 그의 용기를 복돋아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바울 사도를 영적 아버지로서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그들의 신앙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세운 에클레시아로부터 기원했음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바이설라크[Beyschlag]는 그의 논문에서 로마서의 저작기인 기원 57년말-58년과 그리스 에클레시아들의 설립시기인 기원 53-54년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아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온 세계가 그 사실을 듣는 것이 가능하대다. 1:8-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 [살전 1:8-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모든 신자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올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골 1:6-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골로새에 있는 모든 신자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 시리아의 에클레시아의 설립시기를 기원 40년경으로 보면, 로마서의 집필 시기와는 18년 내지 19년의 간격이 있으므로 그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에의 복음 전파 시기와 로마서의 저작 시기 사이의 5년 내지 6년 정도라면, 데살로니카와 고린도[둘 다 거대한 상업중심지임]에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일어났다면,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자들이 시나고그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의 기준을 아직도 세우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는 진지한 신자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성서지식과 2) 연설과 논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기대될 수 없다. [행 18:24-28]에는 아볼로[=아폴로]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뛰어난 재능과 성서에 관한 박식으로 뒷받침되어 그는 시나고그에서 말할 때 대담해졌다.라고 있다. 즉 (24절)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다인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있다.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며 친구인데, 아볼로에게 공개모임에서 질문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어 복음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즉 (26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27절) 아볼로는 아가야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8절)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다인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있다.

○ 바울 사도가 고전 1:23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역설적 선언이었다. 최초의 회심자[=the first comer]가 앤디옥, 에베소, 로마 같은 대도시의 뛰어난 랍비[=유대교 교사]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의 복음선포의 임무에서 뒷걸음친다고 비난 받았다. 고 우리가 추측하게 만든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는 아직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가 롬 1:16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의심에 대한 반박이 아니었을까? 오직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로마의 유대교의 중심인물들에 대하여 그러한 공격을 시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강력한 사람은 아직 로마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로마 에클레시아로 추정하는 에클레시아와 아주 비슷한 에클레시아의 설립에 대한 설명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시리아의 앤디옥 에클레시아의 설립에 대한 기사이다.

○ 스데반[=스테파노]의 박해가 있은 직후 예루살렘에서 타국에 이주하려는 이민들이 시리아 주(州)의 수도인 시리아의 앤디옥[=안티오키아]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의 앤디옥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이들 이방 민족 출신의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그 간의 차이점이 명백하므로, 새로운 이름[=그리스도신자: Christian]이 이들 이방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붙여졌다. 행 11:20-26에는 이렇게 있다.

(20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들과 구레네[=키레네] 사람들이 앤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2절)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바르나바]를 앤디옥으로 보냈다. (23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다. (24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25절) 그 뒤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 [=타르수스]로 가서 (26절) 그를 만나 앤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일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 에클레시아 신자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앤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 신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 이 시리아의 앤디옥의 에클레시아 설립의 모습을 로마의 에클레시아 설립에 옮겨 보면, 우리는 로마 에클레시아의 설립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한다. 로마서 16장의 인사말 중에서 왜 대다수의 이름이 그리스식(式)의 이름인지를! 이로써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시나고그의 지도자들 대다수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또 로마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토록 뜨겁게 인사하려고 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사실이 사도행전의 기사가 어려움 없이 정당하다. 고 입증해 주고 있다.

부활 예수의 증인들

고야마 유코(小山祐子)

* 이글은 일본 이바라키현의 미토(水戸)무교회성서집회의 회원이신 고야마 유코 씨가 2024년 10월 13일 집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남편이신 고야마 사토시(小山 哲司) 씨는 2019년 한국방문 이후, 오류문고에 지속적으로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제 약력을 말씀드립니다. 센다이 출생. 부모님의 전근으로 아키다, 이와테, 미야기현에서 살았고, 소학교 5학년쯤 제 이름의 ‘祐’가 하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료의 따님이 수녀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스러움을 동경하였습니다. 약몽을 꾸는 일도 많아서 그런 소망이 있었지요. 고교 시절 센다이에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 집회의 호시노 씨 부부(星野光利·吟子) 하숙이 같은 동네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토무교회 잡지에서 보고, ‘기막힌 우연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미야기학원의 여자 기숙사가 있어 성탄절이 되면 학생들이 길에서 캐롤을 부르곤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시절 성탄절 이브에 교회를 찾다가 가톨릭교회가 보여 들어갔더니 친구 가족이 있어 놀랐던 적도 있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목표를 잃고 좌절하던 때,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척 놀랐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내가 여기 있다’는 출 3:14과 요 8:8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도쿄에서 결혼을 하고 미토(水戸)로 오면서 교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생 때부터 무교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꺼운 기독교연감에서 무교회집회가 열리는 미토유치원을 찾아 전화를 걸었는데 벌써 35년 전의 일이네요.

미토유치원에는 원장님의 계셨고 우리를 직원실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마쓰모토(松本友子) 원장님은 후일 요양시설에 계실 때, 도움을 주던 직원 아이코(木村愛子) 씨에게 성서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아이코 씨가 우리 집회원으로 앉아 있으니, 복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홈페이지 ‘가정예배 안내’에 올렸던 ‘4복음서의 예수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우치무라 선생의 저작집 13권과 야나이하라 선생의 ‘예수전-마가복음’을 인용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치무라 선생의 글(눅 24:13-35)을 소개합니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예수가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12회이다. 그중 3회는 복음서가 아니다. 즉 다메섹 가는 길의 바울,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 밧모섬의 사도 요한의 체험이 그것이다.

다른 아홉 번은 복음서에 있다. 최초는 막달라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다음은 시몬베드로, 엠마오의 두 제자, 제자들인 모였던 장소까지 연이어 오셨는데 모두 부활하신 첫째날 일이다. 다음은 1주일 후, 주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났고, 갈릴리로 내려가 호반에 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산상의 열 한 제자에게, 야고보 형제에게(고전 15:7), 아홉 번째는 제자들을 인도하여 베다니에 이르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서에 나온 순서대로 정리하였는데, 모두 다 의의와 가치가 있는 귀한 사실이다. 이를 가장 명료하게 묘사한 것이 엠마오의 사건이다. 부활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는 오래된 문제이다. 사실은 이를 믿지 못하는 이가 더 많다.

우치무라 선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론을 펼칩니다.

기사 그 자체가 가장 유력한 증인이다. 다른 기사는 차치하고 엠마오의 기사에 이르면, 앞뒤 자르고 또 부활에 대한 의심을 열어놓더라도 그 서술

이 사실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보라, 그 기사의 발칙함과 생기약동함을. 한 점 꾸밈을 찾을 수 없고, 거두절미 진솔하고 자연스럽다. 체험이 없이 이렇게 생생한 글을 쓸 수 없다는 건 글을 써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엠마오 부활 예수의 출현에 관한 누가의 필력은 성서중에 가장 생생한 묘사이다. 사실 이 기사는 어떤 주제도 필요치 않다. 일독하면 그 힘을 감지할 수 있다.

놀라운 절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60스타디온, 약 11km입니다.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에게 3시간 이상 성서 강의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가득 차고, 어두웠던 표정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타올랐다는 표현처럼 그 나그네(예수)를 신뢰하여 이야기를 듣고 더 싶었습니다. 함께 머물자고 강권한 일이 그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논하였습니다. ‘논하다’는 사전에서 ‘차례로 말하다, 말싸움하다’인데, 비밀스런 사건을 나그네(예수)에게 다 밀한 것입니다.

“부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아침 일찍 무덤에 가더니,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밀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 몇이 무덤에 가 봤지만, 부인들 말대로 그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겠지요. 그 일에 마음이 쓰인 예수님이 다가와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로 시작하여 성서 전체에 걸쳐 자신(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써어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이 대목을 우치무라 선생은 ‘얼마나 위대한 주해였을까’라고 썼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 안에 있다(마 18:20) 하셨으니, 엠마오의 여정은 작은 에클레시아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야나이하라 선생의 예수전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기사는 4복음서 외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도 있다.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보고할 때 각각 세부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 불일치는 그 사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이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특히 부활처럼 대사건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 건 매우 당연하다.”

선생은 부활 후 예수의 등장 기사를 책에 따라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1) 마가복음 : 예수의 부활 사실 기술.

천사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나타날 것을 알림.

2) 마가복음 추가 :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11제자가 식사하던 때, 예루살렘에서 승천.

3) 마태복음 :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예루살렘, 갈릴리 11제자.

4) 누가복음 : 엠마오 두 제자, 예루살렘의 11제자, 베다니, 승천.

5) 요한복음 : 막달라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도마를 제외한 11제자, 도마, 갈릴리에서 베드로 등.

6) 사도행전 : 40일간 종종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포괄적으로 기술.

7) 고린도전서 :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자신의 순.

위의 기록을 비교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고린도전서에는 없다는 게 눈에 띈다. 이들 문헌 중에서 고린도전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며, 그것을 쓴 바울은 논리적인 학자였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둘째로 복음서 중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이 예수의 부활을 천사의 고지로만 기록하고 있다.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주장이 나왔다.

이어서 그 여러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합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가 전혀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게 간명하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되었나? ‘그는 이미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가 고지하였다. 즉 계시에 의한 영감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를 믿었던 것이다.

부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막 16:8)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야나이 하라 선생은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왜 여자들은 두려웠을까? 예수는 부활하셨다!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얼음에 갑자기 손을 대면 뜨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화창한 날씨, 행복한 자리에서 온몸을 덜덜 떠는 것과 같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마도 너무나 큰 환희를 감당할 수 없어 정반대의 감각과 감정을 느낀 게 아닐까. 예수의 빈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부활을 고지받은 여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하였다라는 기사야말로 당시의 진상을 잘 말하고 있지 않은가.

여자들이 침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나이하라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침묵했을까?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논하였다고 했으니, 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음은 틀림없다. 그리고 두렵고 떨렸으나, 자신들이 본 사실, 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므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음을 깨달았다. 전율로 창백해진 입술에 조금씩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고 두려움에 떨던 입에서 힘찬 노래가 나왔을 것이다.

우치무라의 손자인 日永康 씨의 강연기록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멀리서 예수를 지키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몸을 인수하여 무덤에 모실 때까지 따라가 확인하였다. 그분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마 28:9-10).

오늘의 주제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실 그날 아침 베드로만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또 한 제자(아마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심약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아, 마음이 흐리고 둔하여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아, 뭘 걱정하는가, 왜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가,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살 소망을 주셨다(벧전 1:3).”

“우리가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재림에 대해 알게 하였는데, 그것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목격자로서 전한다. 이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받을 때, 영광중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울린 음성을 직접 들었다(벧후 1:16-17).”

베드로는 변화산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목격자로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입니다. 요한도 본 것을 적극적으로 증언합니다.

“생명이 나타났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거하며 여러분께 전한다(요 1:2).”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다(요 4:14).”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편지를 읽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일을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이 후일 보여준 영적성장에 놀라움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어 제자들을 크게 변화시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는 모두 신앙을 가졌다. 즉 신앙이 아니면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없다. 부활의 기사는 증언이지 증명이 아니다(신구약성서신학사전에서).”

日永康(우치무라의 손자) 씨의 글도 같은 결론입니다.

“초대 기독교회에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큰 역할을 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않고 믿는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에 차 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요한도 말하였습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요 20:29).”

후세의 우리에게 위로 가득한 말씀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야마 유코, 고야마 사토시



미토무교회성서집회

오류문고에 책을 보냅니다.

고야마 사토시(小山 哲司) 선생이 오류문고에서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편지와 함께 보내온 책 목록입니다. 현재 소속되어있는 미토무교회성서집회원 중 소천하신 분이 남기신 책을 시작으로 자신의 장서, 구매한 신간 서적 등을 몇 번이나 보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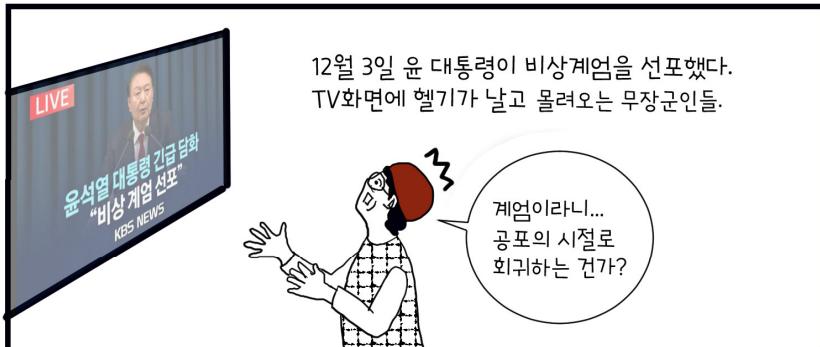
지난번 책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풀무학교에 양보하였고, 이번은 오류문고 장서로 하겠습니다. 무교회 신앙서적과 원자력발전 문제, 오키나와 반전(反戰) 이야기, 그리고 지난해 자신의 큰 수술을 통해 깨달은 암에 관한 건강서적까지 보내왔습니다. 쉬운 일본어로 된 책이니 많은 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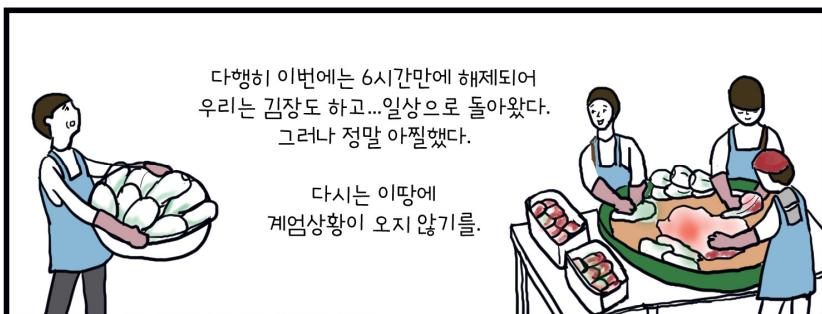
1. 에스테라 펀치 평전(海野涼子) ; 군인 전도에 생애를 바친 여성선교사
 2. 마스모토 우메코 '하나님은 사랑'(桐生清次) ; 우메코의 사랑과 신앙
 3. Metamorphosis(만화, 예수 승천 후 제자들의 반전과 활약상)
 4. Messiah(만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5. 사랑으로 기도한 사람(무교회기독교 전도자 寶田愛子의 생애)
 6. '불굴'에서 온 편지(金井創) ; 沖繩 미군기지 항의선 '불굴'호 이야기
 7. 오키나와에서 평화를 기도하다(国吉守)
 8. 져서 이긴다는(夏本惠) ;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
 9. 震災・原発・헌법을 생각하다(近藤勝彦) : 그리스도교의 세계 정책
 10.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사명(私市元宏) ; 평화헌법과 기독교적 영성
 11. 원자폭탄과 그리스도교(栗林輝夫) ; 広島・長崎는 어쩔 수 없는가?
 12. 당황하지 않는 암치료(藤野邦夫) ; 치료의 기초 철저 가이드
 13. 암을 식사로 치료한다는 사실(星野仁彥 외 1) ; 식사요법
 14. 당신의 암을 없애는 건 당신입니다.(渡邊勇四郎) ; 세포내전해질 정상화
- ※ 이외에 탁구관련 책 2권을 개인적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준엄하신 하나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2:21)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 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 십시오.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⑧)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20호 2025년 1월

인	쇄	2025년	1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신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우	디
			디	엔
			엔	피